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인천 남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

저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더 많은 일자리와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구민 한 분 한 분이 남구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구민의 행복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며칠 전 인천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先之勞之無倦(선지로지무권)**이라는 논어의 글귀를 받았습니다.

구정을 펼침에 있어 바른 방향을 세워 앞장서서 솔선하여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게을리 함이 없이 부지런히 실천하라는 이 말씀을 향후 4년 동안 잊지 않고 마음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저는 남구 구청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우리 남구 구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에게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6기 구청장으로서 민선 5기의 정책비전인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남구의 미션으로 앞서 말씀드린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나라사랑과 지역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이

각기 즐거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600년전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셨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사람, 공간, 시스템의 3대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 갈 때 비로소 희망이 보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지혜로운 시민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공공선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공간은 지속가능 도시를 지향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당장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만이 하나밖에 없는 이 땅, 이 도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시스템은 사회연대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기심과 경쟁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협동경제, 공유경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구민여러분께 학습하는 시민 분야 등 10개 분야 공약 88개와 21개동에 대한 동별 약속 74개 등 총 162개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시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컨트롤타워인 평생학습관을 설립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건강플라자로 건립하며, 구민예술촌 설립, 건강증진120센터 확대, 친환경 급식지원사업 확대, 주민참여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빌라 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지역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5060세대 인생 2모작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공가안전관리 및 활용대책 확대 추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대 조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실천을 위해 통두레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확대 육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기능 강화,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남구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융합한 생산적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공부분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제 도입, 지방정부 발주사업의 계약 공정화, 상가세입자 권리보장, 채무힐링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1개동별로 해당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사업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임기내 모두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개 공약의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당선 직후 학계, 시민단체, 일반구민들께서 참여하신

『**인천남구 착한약속 위원회**』를 구성·활동중에 있으며, 7월중 『**162개 공약에 대한 실천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되는 내용들은 저와 900여 공직자의 민선 6기 행정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며, 저와 900여 공직자는 공약실천이 곧 남구의 발전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구를 원도심 지역발전의 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국회의원 등 중앙부처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구 자체 재원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의 소속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인천을 사랑하고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기에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대화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민선5기부터 추진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경인전철 급행열차 제물포역 정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매몰비용 보전문제, 광역등기국 및 인천가정법원 신설, 보훈병원 건립, 주안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을 중앙정부와 시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00여 공직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의 행정여건은 인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8년동안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민선5기 4년동안 저와 같이 많은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할 4년의 시간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900여 공직자는 저와 동반자입니다. 더 나아가 원도심 지역인 남구를 42만 구민께서 안전하고 잘 살 게 해 줄 소중하고 엄중한 의무를 지닌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혼자서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900여 공직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아까운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 내부에도 공동체정신이 필요합니다. 혼자보다는 주변 동료와의 협업, 더 나아가서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의 당선으로 지난 4년간 구민을 위한 900여 공직자의 열정과 땀은 인정받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남구 발전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년도 저와 함께 선봉에 서서 남구 발전을 위해 전진합시다.

풍족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42만 구민의 성원과 참여, 900여 공직자의 열정,

민선7기 남구의회 의원님과의 협조 등 **모두와의 동행(同行)입니다.**

『천시불여지리 (天時不如地利) 하고,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 한다』고 했습니다.

때가 어렵고 지리적 여건이 나빠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 성공적인 출발과 4년후 멋진 마무리를 위해 저와 900여 공직자, 42만구민,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님과 함께 오늘 밝힌 비전과 공약들을 한가지씩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42만 구민께 밝힌 민선6기의 정책과 기본 정신은 남구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정책의 핵심이었던 사회적기업 진흥, 평생학습 진흥, 생활체육 진흥, 통두레운동 활성화 및 민속문화 진흥 성과를 이어받아

앞으로 4년 동안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착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저의 열정을 쏟아 넣을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기쁨을 같이 하고,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동체의 남구』

이것이 제가 남구청장을 하면서 꿈꾸며 바랬고, 만들고 싶은 공자의 대동세상(大同世上)이자 세종대왕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남구입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에게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42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취임을 축하해 주시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박 우 섭